

李退溪와 李延平에 관하여**

佐 藤 仁*

序 論

延平答問을 읽으셨습니까. 延平翁의 말은, 한없이 친절해서, 사람을驚
悟시켜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점은 존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는 이 글은 이퇴계(1501~1570)가 제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의 한
구절인데¹⁾, 이퇴계와 李延平(1093~1163, 名은 侗, 字는 愿重, 延平
은 그의 號, 朱子の 師)과의 관계에 관하여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延平答問』의 간행과 李延平 학문의 顯彰에, 이퇴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퇴계가 이룩한 학술상 공적 가운데의 하
나에, 『朱子文集』 『朱子語類』 등 성리학 관계 문헌에 대한 훈고학적 연
구가 있는데, 이퇴계는 李延平의 학문과 사상을 구명하는데 있어서 『延
平答問』 중에 나오는 속어나 난해한 어구에 대한 훈고학적 연구에도 마
음을 기울이고 있다.²⁾ 본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나, 이 점도 이퇴계와 李延平과의 관계를 아는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또한 李延平은 자신의 재능과 학문을 숨긴 채 조용히 살다 간 인물이

* 久留米대 교수

** 퇴계학연구소,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이 논문은 제 10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임.

1) 退溪先生文集, 권23, 答趙士敬第5書.

2) 同上, 권33, 答吳子強問目.

다. 이퇴계도 퇴계의 「退」字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韜晦志向이 강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韜晦라고 하더라도 李延平이나 이퇴계는 어디까지나 儒者였으므로, 老莊風의 은둔생활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이퇴계가 수용한 연평사상 가운데의 하나에, 儒者의 관점에서 본 韜晦의 논리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고찰해 보고 싶다. 더욱이 그 전제로서 같은 韜晦의 일생을 보낸 顏子와 그의 학문에 관해서도 약간 고찰해 보기로 한다.

I.

이퇴계는 『延平答問』에 관한 2편의 문장을, 前後해서 작성하고 있다. 명종 8년(1553년), 퇴계가 53세 때 지은 「延平答問後語」와 그 다음 해 가을에 지은 「延平答問跋」이 그것인데, 2편 모두 『퇴계선생문집』 권 43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우선 이 2편의 문장에 의하여 이퇴계와 『延平答問』과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 『延平答問』이 간행된 경위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퇴계는 『延平答問』全文을 보기 전부터, 주자의 四書集注나 四書或問 가운데 인용되어 있는 「師說」, 즉 주자의 스승인 李延平의 학설을 통해서, 李延平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심오함에 대해 경탄하고, 그全文을 볼 수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던 중, 명종 7년 퇴계가 52세 되던 해, 서울에서 朴希正(1516~1586, 名은 民獻, 號는 正菴)과 알게 되어, 그 朴希正의 거처에서 비로소 『延平答問』 전문을 입수하여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숙원을 이룬 희열을 이퇴계는,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얻은 것처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즉시 朴希正에게 이 책을 빌려서,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스스로 필사하고, 아울러 朴希正과 상의하여 전문을 간행할 것을 기획했다. 「延平答問後語」는, 『延平答問』 전문을 처음으로 보게 된 감격을 담아서 스

스로 필사한 『延平答問』뒤에 付記한 것이다. 이 무렵 때마침 청주의 장관인 李剛而(1512~1571, 名은 楨, 號는 龜巖)가 公務로 상경했다. 이퇴계는 당장 李剛而에게 『延平答問』의 간행을 위촉했다. 李剛而도 이는 내심 바라고 있었던 바라고 이를 기뻐하고, 청주에 돌아가 수개월 후에는 이미 간행을 완료하고, 序跋의 작성을 이퇴계에게 의뢰해 왔다. 이 의뢰를 받아서 撰述한 것이 「延平答問跋」이다. 그런데 「後語」 가운데에는 朴希正의 거처에서 본 책을 「所謂答問錄者二卷」이라고 하고 있어서 약간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를 「答問과 그리고 錄二卷」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跋」에

書는 모두 3篇. 師弟子問答이라고 하는 것은, 晦庵夫子가 손수 師說을 편찬한 것이다. 後錄이란, 後人이, 師說에 관해서 말한 晦庵의 말과, 연평에 관한 遺文·遺事를 기록한 것이다. 補錄이란, 琴川의 周木이, 後錄의 不備點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라고 있는 것과 하등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퇴계선생문집』 권 21, 答李剛而第23書 別紙(퇴계가 62세때의 편지)에, 「向所妄作延平書跋, 後來覺得文多冗長, 略加刪改.」라고 적혀 있어, 이퇴계가 「跋」의 문장을 후에 개정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跋」이, 개정하기 전의 것인지 아니면 개정 후의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아마도 개정 후의 것이리라. 이 李剛而가 청주에서 간행한 『延平答問』은, 후일 일본에 舶載되어서, 일본 주자학의 開祖라고도 할 수 있는 藤原惺窩(1561~1619)나 林羅山(1563~1657)의 애독서가 되었던 일, 또 日本刻本 『延平答問』이 청주본의 翻刻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

또한 李剛而에게서 序跋의 작성을 의뢰받고, 이퇴계가 이 일을 맡을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퇴계선생문집』 권 15, 答許太輝第1書, 同卷 21, 答李剛而第6書, 『퇴계선생속집』 권 4, 答李剛而第3書 등에 의해서

3) 阿部吉雄著, 『日本朱子學과 朝鮮』.

알 수 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론에서는 논하지 않으나, 다만 이들 편지에 의하면, 이퇴계가 朴希正의 거처에서 본 『延平答問』은, 본래 南時甫(1528~ ?, 名은 彦經, 號는 東岡 또는 靜齋)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朴希正, 許太輝(1517~1580, 名은 曄, 號는 草堂), 尹彦久(名은 春年, 號는 滄州)라고 하는 서울에 있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근근이 읽혀지고 있었을 뿐, 당시의 조선 학계에서 널리 읽혀지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延平答問後語」에

생각컨대, 우리나라 학자로, 이 서책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회정에게 꼭 印行하도록 부탁했으나, 과연 회정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다행스럽게도 이행되어, 많은 학자들이 이 서책을 귀중하게 여겨 연구하고 진심으로 따르다면, 儒者의 도가 나날이 孤立하고, 이단의 기세가 나날이 왕성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퇴계가 朴希正과 서로 상의하여 이 책의 간행을 계획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II.

그런데 朴希正이나 南時甫나 그리고 許太輝는 모두 원래는 徐花潭(1489~1546, 名은 敬德, 字는 可久)의 문인이다. 서화담은 조선조 理氣哲學의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열거되고 있는 인물로, 그 문인들에 의해서 北宋의 張橫渠(1020~1077, 名은 載, 字는 子厚)와 비교되고 있는 것처럼,⁴⁾ 理氣哲學이라고 하더라도 주기파에 속해 있었다. 또한 明初의 陳白沙(1428~1500, 名은 獻章, 字는 公甫)와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면,⁵⁾ 靜虛主義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인물인 것 같기도 하다.

4) 退溪先生言行錄, 권5.

5) 退溪先生文集 권25, 答鄭子中講目.

『延平答問』은 먼저 이 서화담의 문하생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서화담의 문인들 사이에서 李延平의 학문과 사상은 도대체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나, 퇴계의 서화담 사상에 대한 비판이나, 그 문하생들과 주고 받은 의론의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를 알 수가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花潭門下에서는 오로지 主靜存養說에 비중을 두고 李延平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퇴계선생문집』 권14에 있는 答南時甫第4書와 第5書 등에 의해, 화담 문하의 一人이었던 南時甫의 사상을 推察해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서 湛一淸明한 一氣를 생각하고, 이를 우주의 본체로 삼아, 이 一氣의 자발적인 운동인 聚散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생멸하며, 湛一淸明한 一氣 그 자체는 만고불멸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수양에 관해서는, 主靜存養, 즉 靜坐에 의해서 意欲을 無로 하여 湛一淸明한 경지에 도달하면, 상하천지와 흐름을 같이 하는 세계, 즉 천인합일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스승인 서화담의 淡然虛靜을 氣의 始原이라고 하는 사상을 祖述한 것이며, 더욱 소급하면 장횡거의 太虛則氣의 사상에 그 연원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南時甫는 자신의 서재를 「靜齋」라고 명명하고 그 記文을 이퇴계에게 의뢰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도 南時甫가 靜坐 중심의 靜虛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이상과 같은 南時甫, 더욱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화담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퇴계는 主理主敬의 입장에서 엄하게 비판하기 시작한다. 李延平이, 龜山門下相傳의 旨訣로서 靜中에 있어서의 喜怒哀樂 未發時의 기상을 體認하는 것을 수양 공부의 안목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퇴계도

6) 同上, 卷10, 答李仲久第8書. 同卷42, 靜齋記.

연평은 배우는 자들에게, 喜怒哀樂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때의 기상이 어떠한가를 이해시켜 주었다. 대체로 연평의 學은, 모두 여기에 중점이 있다.⁷⁾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연평의 학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연평의 이른바 未發之時의 기상이란 연평이 『맹자』의 牛山章 가운데 나오는 「夜氣」를 설명할 때에 사용한 澹然虛明이라는 말이 그것에 해당되는데, 이 말은 南時甫가 湛一清明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澹然虛明이든 湛一清明이든간에,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기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理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 화담과 그 문하생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湛一清明한 것을, 그대로 우주의 본체 내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간주하고, 靜坐에 의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체론으로서는, 理를 인정해서 氣라 하고 혹은 氣를 가리켜서 理라고 하는 것이 되어, 理氣의 분별이 아주 애매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수양론으로서는, 禪의 靜虛主義, 頓悟主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퇴계가 화담 문하의 主氣·主靜의 학문을 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퇴계에 의하면, 李延平이 말하는 主靜說은, 화담문하가 이해했던 것과는 완전히 질을 달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부터 자주 거론되어 온 바이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主靜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歷事求靜」, 「歷動求靜」의 폐해가 생겨서 결국 禪의 靜虛主義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李延平의 靜坐의 학문에는 이러한 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이퇴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그 하나는, 예를 들어

羅(豫章) 李(延平) 兩先生은, 모두 타고난 성질이 沈靜했으므로, 이를 구하는 방법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러므로 폐해가 생기지 않고도

7) 退溪先生言行錄, 권1.

(未發의 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타고난 성질이 鬧躁한데다, 무리하게 이를 구하려 하므로 폐해가 생겨서 결국은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⁸⁾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羅豫章(1072~1135)이나 李延平의 경우는, 천성이 沈靜 즉 안정되어 있어서, 조금하게 효과를 서두르지 않았으므로, 「以不求求之」, 다시 말하면 存養의 공부가 저절로 행하여져서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폐해가 생기지 않고도 未發의 中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천성이 鬧躁 즉 침착하지 못하고 조금하게 효과만 구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아무리 해도 「強探力求」, 요컨대 억지로 구하는 것이 되어 폐해만 생겨서 결국 未發의 中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퇴계의 『自省錄』 冒頭에 수록되어 있는 答南時甫書⁹⁾에는, 南時甫가 心氣의 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퇴계에 의하면, 그 원인은 「強探助長之患」, 즉 지나치게 조금히 효과를 서두른 나머지, 그 存養窮理의 공부에 무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퇴계가 자주 인용하는 『延平答問』가운데 있는 말에, 「非著意, 非不著意」란 것이 있고, 南時甫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도 나와 있으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修爲工夫가, 새삼스럽게 그 효과를 서두를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을 존중하는 사상이며, 이는 『맹자』의 「必有事焉, 而勿正心, 心勿忘, 勿助長也。」¹⁰⁾에 유래한다.

李延平의 靜坐工夫에 폐해가 생기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이퇴계가 특히 주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은, 李延平이 主靜存養의 공부와 병행해서, 道理 그 자체에 대해서는 應事接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숙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퇴계는 李延平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習熟하도록. 안정된 때에는 도리를 알고 있으나, 활동할 때에 그 행위가 도리에 어

8) 退溪先生文集, 권36, 答李宏仲.

9) 同上, 권14, 제1서 別幅.

10) 公孫丑章句上.

곳난다면 그것은 참 학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¹¹⁾

라고 하는 발언을 主靜存養을 중시하는 자들에 대한 頂門의 一針으로 종종 인용한다. 또한 이퇴계는, 李延平의 默坐澄心の 공부, 독서공리 공부와 긴밀하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연평의 默坐澄心하여 天理를 體認한다고 하는 학설은, 배우는 자의 독서공리의 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다.¹²⁾

라고도 말하고, 더 나아가 李延平의 공리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연평이, 하나의 사항을 완전히 습득해서 融釋脫落하는 것을 기다려, 그 후에 순서에 따라 가까운 것으로부터 高遠한 것으로 조금씩 점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공리의 常法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특히 深長한 것이다.¹³⁾

라고 말해, 一事가 融釋 즉 心과 理가 완전히 융화한 상태로 되는 것을 기다려서,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점진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퇴계는 欲速過高, 強探助長이 화근이 되어 심기의 병에 걸린 南時甫에 대해서도, 그 심기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세속적인 영욕이나 利害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과의 교제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을 조심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自然景色이나 서화, 화초를 즐겨, 마음을 항상 평정하고 온화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유함과 동시에, 많은 것을 탐하거나, 卽效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平易明白한 일상생활에 관한 理法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익혀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循循積積의 점진주의적인 공리법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퇴계는, 연평의 主靜의 학문이, 禪的인 靜虛主義와도, 또한 靜坐함으로써 본체를 悟得한다고 하는 頓悟主義와

11) 延平答問補錄 所收, 延平與羅博文書.

12) 退溪先生言行錄, 권1.

13) 退溪先生文集, 권14, 答李叔獻別紙.

도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젊은 시절 禪學에 경도하고 있었던 주자를 유학의 진영으로 되돌아 오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그러면 이퇴계가 이해한 李延平의 靜坐의 學이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퇴계에 의하면, 李延平의 靜坐는, 靜坐에 의해서 본체를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의 靜坐는 아니고, 또한 독서공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應事接物하는 動處의 공부가 번잡한 것을 꺼리며, 塊然兀坐, 오로지 마음의 안정만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연평의 靜坐의 설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선생께서 이르기를, 정좌를 함으로써 비로소 身心이 수렴되어, 도리가 응집할 장소가 생긴다. 만약 태도가 야무지지 못하고 행동에 맺힌 데가 없어 칠칠치 못하다면, 身心이 혼란하여 도리가 응집할 곳이 없어져 버린다. 때문에 考亭(朱子)은, 연평과 대좌할 때에는, 종일 靜坐하고, 退出하여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靜坐를 했다는 것이다.¹⁵⁾

라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심신수렴의 한 수단으로서의 정좌였다. 몸이 긴장해 있지 않으면 심신이 혼란해진다. 심신이 혼란하면, 知的으로나 行的으로나 도리가 진실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심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수렴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좌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일찌기 정자나 주자는, 主靜工夫가 禪에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敬을 가지고 靜에 대신했다. 敬은 動靜을 일관하는 심신수렴의 공부이다. 연평의 主靜의 學도, 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주지는 敬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퇴계의 해석이었다.

또한 이퇴계는, 周濂溪(1017~1073)의 主靜의 입장과, 程明道(1032~1085), 程伊川(1033~1107)이후의 宋儒들이 중시한 정좌의

14) 延平答問跋.

15) 退溪先生言行錄, 권1.

學과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염계선생에 이르러 主靜의 설이 생겼다. 성인은 動靜의 덕을 완전히 體現하고 있으나, 그것은 항상 靜에 의거하고 있음을 말했을 뿐으로, 학문공부를 하는 단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程子門下에 이르러, 비로소 배우는 자 중 많은 수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걱정하므로써, 정좌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의 결점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었다.¹⁶⁾

이퇴계에 의하면, 주렴계가 『태극도설』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있는 主靜說은, 성인의 덕을 진술한 것으로, 배우는 자의 爲學工夫를 대상으로 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즉 성인은 動靜의 덕을 겸비하고 있으나, 그 성덕의 기본은 靜, 환언하면 私意私欲이 없는 참으로 주체성이 확립된 경지(이것을 기상으로 본 경우에는, 澹然虛明이라든가 湛一清明이라고 말하고, 物에 비유하면 明鏡止水와 같다고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 것으로, 위학공부로서의 主靜을 말한 것은 아니다. 程子에 이르러, 배우는 자에게 紛擾의 患, 즉 심신에 안정성을 잃는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학문이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으므로, 그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서, 비로소 정좌를 심신수렴을 하기 위한 수양 공부로서 채용한 것이라고. 이것에 의해서도 이퇴계의 정좌의 學에 대한 사고방식의 특색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요컨대 이퇴계도 澹然虛明이라든가 澹一清明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경지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성인에게만 허락된 높은 경지로서, 일반 배우는 자가 정좌에 의해서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만일 단번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공부에 무리가 생겨서, 도리어 心害가 생기든가 아니면 空疎한 관념론에 그치고 말 위험성도 없지 않다. 李延平이 말하는 정좌는, 어디까지나 심신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점진적인 공리의 공부

16) 退溪先生文集, 권37, 答李平叔.

와 서로 어울려서 비로소 수양 공부로서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멀리 소급해 올라가 보면, 「誠身」의 전제로서 「明善」을 말하는 『中庸』(제20장), 「養氣」의 전제로 「知言」을 말하는 『맹자』(公孫丑章句上)의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 장을 마침에 있어서, 이퇴계가 자주 인용하는 李延平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 보련다.

연평선생은 언제나, 도리는, 낮동안에 이해해서, 밤이 되면 조용한 곳에 가서 지그시 앉아思量하시오. 거기에서 비로소 도리가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이 연평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학문 공부를 행하였는데, 확실히 이전과는 몰라보게 학문이 진보했다.

다만 이것은 주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퇴계가 이해한 李延平의 정좌의 학이다.

III.

이퇴계는 「延平答問跋」 가운데서 李延平의 공적을 기리어

대저 晦庵夫子는, 연평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불교나 노장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후, 선생을 만나고부터는 학문이 平實해져서 드디어 千載不傳의 道統을 修得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무릇 회암이 群書を 折衷해서, 성인의 도를 천하에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연평선생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연평선생이 회암에게) 심법을 授受함에 있어서도, (연평선생이) 사용한 탁월한 방법은 이 書(延平答問) 가운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지금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 平淡質慤하여, 특별히 뛰어난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나, 그 旨意는 精密·深遠·浩博하여, 무한한 정취가 있다. 그 극치를 미루어 궁구해 가면, 그 明智는 日月과 견줄 정도로 밝아서, 조화를 幽參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공부의 친절한 점은 언제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의 應事接物 動靜語默에서 遊離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좌에 의해서 喜怒哀樂未發의 中을 구한다고 하는 선생의 학설이, 卓

然하게 禪學에 淪沒하지 않고도, 大本達道에 널리 통하고 있었던 이유이다. 아아, 朱程沒後, 그 학문사상은 一傳再傳하는 동안에 이미 대의와는 어긋나게 되었다. 만약 선생이 없었다면, 도대체 누가 正道로 되 돌아오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성인의 蘊蓄을 발명하여 이를 만세무궁에 전한 것은 顏子이다. 선생의 공적은 이 안자의 공적에 거의 필적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¹⁷⁾.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一文은 이퇴계의 李延平觀을 요약하여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의 「發聖人之蘊 教萬世無窮者顏子也. 而先生庶幾近之.」라고 하는 一節은, 周濂溪의 『通書』 聖蘊 제29에

알려고 애타게 노력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지도해 주지 않는다.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마음 답답한 상태가 아니면,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알려주어 나머지 세 모퉁이를 유추해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반복하여 알려주지 않는다(述而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다.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하늘은 아무 것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지만), 사계는 운행되고, 만물은 성장하고 있다고(陽貨篇). 그렇다고 한다면 성인의 蘊蓄은, 만약 안자가 없었다면, 거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인의 蘊蓄을 발명하여 만세무궁에 전한 것은 顏子이다. 성인은 天과 한가지로, 스스로 그 蘊蓄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어찌 深厚한 일이 아니겠는가. 보통사람은, 하나를 들어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 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알아 주어 유명하게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천박한 일인가.

라는 것에 의거한 것인데, 이퇴계는 이 『通書』 중의 일절을 인용하면서, 李延平의 공적을 안자의 그것에 비유하고 있다.

李延平이 안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延平答問』 가운데

안자는 深潛純粹하여, 성인과 같은 체질을 이미 구비하고 있었다. 夫子

17) 朱子語類, 권104, 退溪先生文集, 권28, 答金惇叔. 同권28, 答金而精等所引.

의 말을 들으면, 무언 중에도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夫子와 하루종일 이야기를 나누어도, 거슬리는 일이 없어, 마치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물러나온 후의 그의 사생활을 보면, 그의 일상의 動靜語默은, 모두 夫子의 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夫子의 도를 따라,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이로써 비로소 안자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주자가 『논어집주』 爲政篇 「子曰吾與回言終日」章에, 師說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수긍된다. 이처럼 李延平이 안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李延平의 사상과 안자와의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李延平이 안자를 평한 深潛純粹란 말은, 주자가 스승인 李延平을 평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고,¹⁸⁾ 天理에 순수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진실로 안정되어 있는 순수하고 자연스런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

중국 송대에 이르러 형성된 新儒學의 특질에 대해서 말할 때,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안자와 그의 학문이 재인식된 점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程伊川이

옛날의 학문은 하나였으나 오늘의 학문에는 셋이 있고, 이단은 이 중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하나는 문장의 學이며, 두번째는 訓詁의 學이며, 세번째는 儒者의 學이다. 만약 도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儒者의 學을 제쳐두고 다른 데에는 없는 것이다¹⁹⁾.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래 학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문장훈고의 學(이것을 科擧와 관련지어 말하면 希名慕利의 學)을 대신하여 儒者의 학문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일찌기 문장훈고의 학이 이룩할 수 없었던, 참 의미로서의 인간형성을 가능케 하는 학문으로서, 儒者의

18) 朱子語類, 권103.

19) 河南程氏遺書, 권18.

학문이 새롭게 재인식 되었기 때문이다.

안자와 그의 학문을 중시한 선구자로서, 우선 거론해야 할 사람은 胡安定(993~1059)과 周濂溪이다. 周濂溪가 젊은 시절의 程顥·程頤 두 형제에게 「仲尼와 안자가 즐긴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출해서 부귀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 이외에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周濂溪가 안자와 그의 학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敬意를 품고 있었던 것은, 그의 主著인 『通書』를 읽으면 일목요연하다. 앞서 거론된 「聖蘊」제29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이외에도 「志學」 제10, 「안자」 제23이 있는데, 周濂溪는 이들 문장 가운데에서 안자와 그의 학문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선 우선 「志學」 제10을 들어 보겠다.

성인은 天과 하나됨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士는 현인이 되는 것을 바란다. 伊尹·顏淵은 위대한 현자이다. 伊尹은 그 임금이 요순과 같은 훌륭한 주군이 되지 못하고, 인민 중에 한사람이라도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대중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형을 받은 것처럼 깊이 부끄러워했다. 안연은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반복하는 일따위는 없고, 長期에 걸쳐서 仁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들이, 伊尹이 뜻한 바에 뜻을 두고, 안연이 공부한 것을 배운다면, 伊尹·안연 이상으로 진보하면 성인이 될 것이고, 伊尹·안연의 수준에 달할 수 있다면, 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준에 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는 명성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 가운데에는 안자와 나란히 이윤의 이름을 들어, 이 안자와 이윤을 大賢이라 하고, 선비의 당면한 목표는 賢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經世濟民의 도에 뜻을 둔 자의 모범은 이윤이며, 학문의 도에 종사하는 자의 모범은 안자라고 하고 있다. 周濂溪는 이윤의 志와 안자의 學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기

술하고 있지 않으나, 예를 들어 『通書』 「陋」 제24에

성인의 도는, 들으면, 언제까지나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한다. 이 성인의 도를 마음에 축적시켜 두면, 훌륭한 덕행이 되고, 실천하면 훌륭한 事業이 된다. 문헌만으로 일이 다 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은 비루하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성인의 도를 내 몸에 습득하여, 이를 덕행으로 실현시켜 가는 곳에 안자의 학문이 있고, 성인의 도를 사회에서 시행하여 이를 사업으로서 실현시켜 가는 곳에 이윤의 뜻(志)이 있다고 하고,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둘을 긴밀하게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사려되어진다. 후에 胡五峰(1106~1162)은, 周濂溪가 이윤의 志와 안자의 학문을 중요시한 배경에는 당시의 과거를 위한 학문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周子は,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내 몸과 내 가문을 번영시켜, 세속에 아첨하고, 군주의 총애를 받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므로 이윤이 뜻한 바에 뜻을 두었다고 했던 것이다. 또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文辭를 교묘하게 하며, 지능을 자만하고, 空寂을 敬慕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기에 안연이 공부한 것을 배운다고 말했던 것이다.²⁰⁾

후에 朱子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인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白鹿洞書院을 부흥했는데, 이 서원의 교학기본으로 이윤의 志와 안자의 學을 못박아 놓고 있다.²¹⁾

이윤의 志에 대해서는 잠깐 제쳐두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안자의 학문의 顯彰 문제에 대해서 말해 보고 싶다.

20) 周子 通書解, 所引.

21) 朱子文集, 권1, 白鹿洞賦, 允莘摯之所懷, 謹巷顏之所執.

공자가 여러가지 인간의 영위 가운데에서도, 특히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새삼스럽게 여러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자의 제자인 子夏도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²²⁾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자의 제자들도 모두 학문에 힘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오로지 안자만이 好學이라고 말하고 있다.²³⁾ 그렇다면 안자만이 즐긴 학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로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을 문제삼았던 사람이 있다. 그는 程伊川의 스승에 해당되는 胡安定이다. 호안정은 明體適用的 학문을 제창하여 송대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로, 그가 국자감의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제출했던 것이다.

정이천의 「顏子所好何學論」²⁴⁾은 당시 학생이었던 정이천이, 호안정의 제출에 답한 것이다. 호안정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출한 진의는 분명치 않으나, 정이천의 「顏子所好何學論」은 송대 유학자들의 학문관을 아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요지는 대강 다음과 같다. 학문의 목적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은 안자의 학문 이외에는 없다고 하면서, 안자의 학문이 다른 여러 학문보다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仁義禮智信이라고 규정하고 난 후에, 「불순이 섞여 있는 情을 순수한 본연지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復性復初의 학문을 말하고 있는 면에서 본다면, 唐의 韓愈의 「原性篇」과 李翱의 「復性書」의 논지를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후일 주자는 『近思錄』을 편찬할 적에, 권2 爲學篇 冒頭에, 먼저 周濂溪의 『通書』 가운데의 「志學」 제10을 들고, 다음에 周濂溪의 『通書』 「陋」제 34를 들고, 그 다음에 정이천의 「顏子所好何學論」을 들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도 안자의 학문이 송학의 학문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22) 論語, 子張篇.

23) 論語, 雍也篇.

24) 河南程氏文集, 권8.

그렇다면 希聖의 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자의 學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가. 前掲한 바와 같이 周濂溪는, 「不遷怒, 不貳過, 其心三月不違仁」이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들어서 안자의 학문을 설명하고 있고, 정이천의 「顔子所好何學論」에서는 이에 덧붙여서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²⁵⁾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²⁶⁾ 「有不善, 未嘗不知, 知之, 未嘗復行也」²⁷⁾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들어서 안자의 학문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不遷怒, 不貳過, 其心三月不違仁」이란, 공부의 효험으로서, 공부 그 자체는 아니고, 안자가 노력한 점은 스승인 공자로부터 배운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바꾸어 말하면 克己復禮의 공부에 있었다.²⁸⁾ 물론 안자라고 하더라도 「博我以文, 約我以禮」²⁹⁾라고 있는 것처럼, 널리 학문을 닦은 것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을 것이며, 儒者의 학문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자도, 力行할 뿐으로 학문을 닦지 않으면, 성현의 成法을 생각해서 사리의 당연함을 알 수가 없게 되어, 행위가 私意에서 나올 경우가 있다면서, 널리 학문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안자의 학문의 긴요한 곳은, 約禮 즉 극기복례의 學이었다. 주자는 또한, 「안자의 학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性情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하다, 무릇 학문을 함에는 반드시 성정에 대해 노력을 맨 먼저 기울여야 한다. 비단 성정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行步坐立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³¹⁾라고 응답하고 있다. 성정에 관한 노력이란, 內省的인 이른바 존양성찰의 공부를 말하며, 行步坐立에 관한 공부란, 「坐如尸, 入如齊」³²⁾라든가, 「足容重, 手容恭」³³⁾이라고 하는

25) 論語, 顏淵篇.

26) 中庸章句, 제8장.

27) 周易, 繫辭下傳.

28) 주자語類, 권30.

29) 論語, 子罕篇.

30) 論語, 學而篇, 弟子入則孝章 朱注.

31) 주자어류, 권93.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威儀動作에 관한 노력을 말하는데, 이 양자가 안자의 극기복례의 공부의 내용이 되고 있었으며, 宋儒는 이 안자의 學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인간형성을 의탁했던 것이다. 이 안자의 극기복례의 공부에 관해서, 이퇴계가 흥미있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心은 萬事의 근본이며, 性은 萬善의 근원이라고 듣고 있다. 그러기에 先儒가 학문을 논할 경우에는, 반드시 放心을 거두어 들이고, 덕성을 기르는 것을, 공부를 시작하는 맨 처음의 着手處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실은 본원의 바탕을 성취해서, 도를 완성하고 사업을 광대하게 하는 기초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공부의 요점은 다른 곳에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主一無適이라 하고, 戒愼恐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主一의 공부는, 動靜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戒懼의 공부는, 오직 未發時에 익혀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아니되나, 외양을 제어하여 그 내심을 기르는 공부가,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三省三貴四物과 같은 類는, 그 어느 것도 應接時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 의도하고 있는 바는, 역시 본원을 함양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응접할 때에 공부를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기르는 공부에만 중점을 둔다면, 대부분의 경우, 불교의 사고방식에 떨어져 버린다.³⁴⁾ 안자의 四物, 曾子の 三貴는, 視聽言動, 容貌辭氣의 위에서부터 공부를 행하는 것이다. (정이천의) 이른바 밖에 나타나는 視聽言動을 규제하는 것은, 그 안이 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³⁵⁾

여기서 이퇴계는, 안자나 증자가 마음쪽에만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視聽言動, 容貌辭氣에 있어서도 공부를 했던 점, 즉 정이천의 이른바 외면을 억제하여서 내면을 기른다고 하는 방법³⁶⁾을 채택한 것을 높게

32) 禮記, 曲禮上.

33) 禮記, 玉藻.

34) 退溪先生文集, 권16, 答奇明彦.

35) 退溪先生文集, 권31, 答禹景善問目別紙.

36) 河南程氏文集, 권8, 四箴序.

평가하고, 여기에 불교의 唯心主義的인 공부와의 相違點을 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성(심성)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자칫 잘못하면 禪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陸王의 心學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라 사려된다. 또한 「回也其庶乎. 屢空.」³⁷⁾의 「空」을 「虛中」(虛心)이라고 하는 해석이 魏의 何晏의 『論語集解』에 있고, 後에는 불교의 「空寂」과 같게 해석하는 사람도 나타났으나,³⁸⁾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퇴계는, 明의 程篁燉(1445~ ?)의 「心經附注」을 神明처럼 존중하고, 그것을 초석으로 삼아 자신의 心學을 형성했는데, 이퇴계의 心學이, 禪이나 陸王의 心學과 一線을 달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외면을 억제하여서 심성을 함양하는 것을 마음의 공부(居敬)의 가장 긴밀한 것으로서 중시한 점에 있었다.

IV.

그런데 안자나 李延平이나 이 두 사람은 모두 韜晦의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다. 經世濟民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동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던들 안자는 무명인 채로 일생을 보냈을 것이고, 주자란 제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李延平도 세상 어느 구석에 묻힌 채 끝났을 것임이 틀림없다. 유학자의 이상이 修己治人에 있다고 한다면, 치인의 방면이 缺落되어 있었던 이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학자의 이상에서는 아주 빗나간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대인의 안목으로 보면, 이 退嬰的인 생활태도는 패배주의라고 혹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퇴계는 이러한 안자나 李延平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자신도 韜晦涵養의 생

37) 論語, 先進篇.

38) 주자문집, 권33, 答呂伯恭第5書 참조.

활을 희구하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종용하고 있다.³⁹⁾ 그렇다면 그 이
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사회환경의 문제에 있다.
일찌기 맹자는 禹稷과 안자를 비교해서

禹나 稷은, 화평한 시대에 태어나 홍수를 治理하거나, 농사를 백성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직무에 바빠서, 언제나 밖에서 일하고 있어서, 세번이
나 자기집 문전을 지나가면서도, 한번도 자기 집에 들를 틈이 없었다.
공자는 이들을 현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顔回는 난세에 태어나 좁은 뒷
골목에 살며, 竹器에 담은 밥 한사발을 먹고, 표주박에 담은 국을 먹으
며 살고 있었다. 이런 생활은,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난한 생활이었으나, 안자는 태연하게 변함없이 도를 즐기고 있었다.
공자는 안자 또한 현인이라고 칭찬했다. 맹자가 말했다. 禹·稷·顔回
3인은 그 처세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이 보이나, 근본되는 점에서
는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있는 지위에 섰던 禹는 천하에
一人이라도 물에 빠지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빠지게 한 것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직은 천하에 일인이라도 굶은 자가 있으면, 마치 자
기가 굶주리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듯이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
로, 이처럼 홍수를 治理하고,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을 급무로 알고, 자
기 집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직·안회는, 그 지위
를 바꾸면 모두 같게 될 것이다.⁴⁰⁾

라고 말하고 있다. 평화로운 세상에 제왕으로서 일생을 마친 禹나 稷에
게 있어서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하여 일하는 것이 시의
에 맞는 생활방식이고, 난세에 一庶民으로서 살았던 안자에게는 韜晦의
생활이야말로 시의에 맞는 삶의 태도였으며, 道는 같아도, 때와 장소와
지위가 다르면 생활방식도 서로 다르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도가 같
으니까 그 지위가 바뀌면 禹稷도 안자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
을 것이며, 안자도 우직과 같은 생활방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39) 退溪先生文集, 권33, 答丁景錫.

40) 離婁章句下.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에게도

공자가 안연을 향해서 말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 나의 道를 실천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조용히 숨어버린다. 이와 같이 出處進退의 정도를 얻은 것은, 나와 그대 정도일 것이다.⁴¹⁾

라는 발언이 있고, 또한 맹자는 공자를 「聖之時者」로서, 공자의 출처진퇴가 시의에 맞는 곳에, 공자의 집대성자다운 이유, 위대성을 보려고 하고 있다.⁴²⁾ 맹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자기의 뜻이 실현되어, 主君에게 등용되었을 때에는, 백성과 더불어 인의의 도를 실천하고, 뜻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主君에게 등용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引退하여 오로지 나의 도를 홀로 실천한다. 부귀도, 그 마음을 사로잡아 미혹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 절조를 바꾸게 할 수 없으며, 권력이나 무력도, 그 뜻을 굽히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대장부라고 불리우는 것이다.⁴³⁾

이처럼 때와 장소와 지위에 부응한 行藏이 자유자재한 생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다고 보고, 亂世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韜晦의 생활을 하며, 자기 혼자 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의에 맞는 생활방식이며, 「暴虎馮河」 즉 子路和 같이 혈기에 찬 무모한 태도⁴⁴⁾는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 처세의 지혜가 유자에게는 있었다.

進退存亡의 도를 알고, 인간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오직 성인뿐일 것이다.⁴⁵⁾

41) 論語, 述而篇.

42) 孟子, 萬章章句下.

43) 孟子, 滕文公章句下.

44) 論語, 述而篇.

45) 易經, 乾卦 文言傳.

라고 말하는 『易』의 지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李延平이 無位無官의 一布衣로서 감히 韜晦의 생활을 보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李延平이 살았던 북송말기부터 남송초기에 있어서의 12세기초의 중국은, 사회 전체가 혼미의 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우리들 학자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다만 조용한 시골에서, 質素한 생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모두 잊어 버리고, 자신의 학문이 진보하는 것만을 일편단심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의 정세를 보고 판단해 보건대, 이와 같은 시세에 대처하려면, (易의 否卦의 象傳에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남에 눈에 잘 띄지 않게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밖으로부터의 禍難을 피하고, 지금 이상으로 자기의 才德을 감추고 사람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신입니다. 이것 이외에, 한 때 안심시키기 위한 허황된 위안의 말 같은 것은 귀담아 듣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의 사대부의 기풍은, 상하 모두 빠짐없이 무슨 일이든 과장해서 요란하게 떠들어 대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는, 아무리 해 보아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내 몸을 닦아 훌륭한 인간이 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재덕을 숨겨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하고, 열심히 함양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단 세속과 의견충돌을 일으켜, 引退하여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은 流俗에서 멀리 떨어진 고결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완전한가 아닌가라는 점에 이르러서는, 득실이 반반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경』의 麟之趾에 있는 것처럼) 衰世의 公子를 모두 信厚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文王과 같은 仁政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문왕의 교화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겠지요. 게다가 楊龜山이 胡文定에게 보낸 매화의 시를 읽어보면, 진실로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재덕을 마음속 깊이 숨겨 두고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열심히 함양에 힘쓰고, 자기의 재덕을 깊숙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韜晦할 수가 없고,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나면, 침착하게 있지를 못하고, 곧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은 어느 것이나 『延平答問』 가운데에 있는 말이고, 李延平이 젊은 주자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말이다. 이퇴계도 이 중의 몇 가지를 인용해서 韜晦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주자의 경우는, 李延平과는 달리 관직을 맡고 있었으므로, 李延平만큼 철저히 할 수는 없었지만, 주자도 역시 그 字인 元晦의 「晦」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韜晦 지향이 강했던 인물이며, 事功派, 表現派, 行動派인 陸放翁(1125~1209)이나 陳龍川(1143~1194) 등에게 퇴영적이라고 해서, 관료로서의 출처진퇴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이퇴계가 산 시대도 또한, 士禍가 빈발하고, 비방과 중상이 격심했던 아주 험악한 시대였던 것 같다. 이퇴계에게 韜晦 지향이 강했던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奇高峰에게 답한 편지⁴⁶⁾ 가운데에서 이퇴계는 선비의 출처진퇴의 문제에 언급하여, 당시의 관료지식인들 가운데의 대다수가 世患에 걸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터에 자존심만 강하고, 시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치 세계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바꾸어 말하면 자기자신의 학력과 자신이 놓여 있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무모하게 정치세계로 뛰어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것보다도 지금은 물러나서 학문수양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완성시키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신의 출처진퇴의 문제에 언급하여, 「義之所在, 隨人隨時, 變動不居」, 즉 이 사회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생활방식을 가져야만,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46) 退溪先生文集, 권14, 同卷17.

을 잃지 않고 마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바꾸면 학문과 수양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아니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가, 또 그 사람이 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자기자신에게는, 물러나서 학문수양에 힘쓰는 일만이 時宜에 맞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南時甫가 「爲我的 學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던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이퇴계는, 事功派인 陳龍川의 비판에 답한 주자의 말⁴⁷⁾, 『延平答問』 가운데의 「草木衣食云云」의 말, 또한 같은 『延平答問』 중에도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の 「諸宮觀梅寄康侯」의 시⁴⁸⁾를 들어서, 겉으로 나타난 形跡面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자신의 학문은 楊朱의 爲我的 학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이퇴계에 한한 문제는 아니고, 안자나 李延平에 대해서도, 또한 주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자, 李延平 거기에 주자나 이퇴계도 포함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의 학문과 양주의 爲我的 학설과의 相違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주의 爲我主義는 맹자가 「군주를 무시한다」⁴⁹⁾고 하여 엄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양주는 그의 貴生의 견지에서, 名聞利達을 자기 생을 해치는 것으로서 물리쳤는데, 그 결과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⁵⁰⁾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안자, 李延平, 주자,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名聞利達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은 양주와 비슷하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단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지하게 몰두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안자라 할지라도 천하국가를 治理하는 방법을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하고 있다.⁵¹⁾ 그들의 인성론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을 전

47) 주자문집, 권36.

48) 楊龜山先生全集, 권42.

49) 孟子, 滕文公章句下.

50) 孟子, 盡心章句上.

51) 論語, 衛靈公篇.

제로 해서 구성되고 있고, 따라서 학문 그 자체가 그 중에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中庸』은, 자기를 완성시키고, 타인은 물론 사물을 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외를 통합하는 도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⁵²⁾ 이 점이야말로 양주의 학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자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유학의 특질은, 자기자신을 형성·완성하고, 他者를 他者로서 형성·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하여, 여기에 내외를 통합시키는 도가 있다고 해서, 修己治人의 도를 배우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明德에서 新民으로, 修己에서 治人으로 확충시켜 가는 곳에 유학의 특색이 있었다. 『中庸』에 「苟不至德, 至道不凝焉」⁵³⁾이라고 있고, 또한 『역』에 「崇德而廣業」⁵⁴⁾이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이어받아 이퇴계도

心은 萬事의 근본이며, 性은 萬善의 근원이라고 들고 있다. 그러기에 先儒가 학문을 논할 경우에는, 반드시 放心을 거두어 들이고, 덕성을 기르는 것을 공부의 맨 처음의 着手處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실은 본원의 바탕을 성취해서 도를 완성하고, 사업을 광대하게 하는 기초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⁵⁵⁾.

라고 말해, 存養의 공부에 의해서 本原의 地를 성취하는 것이 凝道廣業의 기초라고 하고 있다. 또한

(子路처럼)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충고받는 것을 기뻐하고, (舜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겨하며,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을 거듭한다면, 도덕이 내 몸에 구축되어 자연히 훌륭한 공적을 쌓고, 자연히 광대한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

52) 중용, 제25장.

53) 중용, 제27장.

54) 주역, 繫辭傳上.

55) 퇴계선생문집, 권16, 答奇明彦.

다. 이와 같이 되어 비로소,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다 스러서 도를 실행한다고 하는 책무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⁵⁶⁾.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상과 같이 안자, 李延平, 주자, 그리고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나가 경세의 일을 하기 보다도, 자기 수양쪽에 비중을 두고, 내성적인 존양성찰 공부를 학문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바깥 세계보다도, 먼저 내면적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韜晦라든가 韜晦志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산 시대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보다도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韜晦涵養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儒者중에서 韜晦의 길을 택한 사람들, 韜晦지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모두 내성적인 자기수양쪽에 학문의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퇴계는 儒者의 韜晦와 楊朱의 爲我主義와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延平答問』중에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の 「諸宮觀梅寄康侯」의 시를 들고, 또한 「最可賞味」⁵⁷⁾라고 평하고, 문인에게 味讀을 권유하고 있다.

欲驅殘臘變春風 只有寒梅作選鋒 莫把疎英輕鬪雪 好藏清艷月明中

이시의 의미는, 「겨울의 寒氣를 쫓아버리고 따뜻한 춘풍으로 변할려고 하는 때, 그 先鋒이 되는 것은 寒梅이다. 그러나 이 한매의 疎英을 차디찬 눈과 경망스럽게 싸우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는 그 청아한 자태를 月明가운데 살짜기 놓아두는 쪽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있다. 儒者가 말하는 韜晦涵養의 眞意를, 실로 的確하게 表明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6) 同上.

57) 퇴계선생문집, 권34, 答金士純.

(박 양 자 譚)